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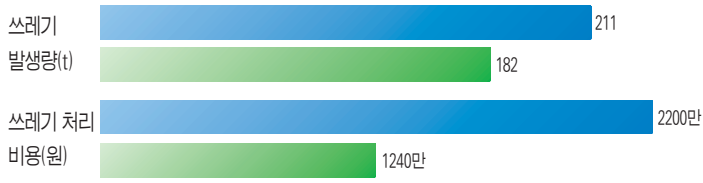
■ 신안 증도 쓰레기 모아오면 입장료 환불해줬더니

1000원의 힘!... '청정 증도' 만들었다

대교 개통되자 80만 관광객 찾는 대표관광지로
쓰레기 발생량 하루 2t → 6t '쓰레기 섬' 오명
입장료 받고 봉투 주자 양 줄고 처리비용도 줄어

■ 입장료 환불해 줬더니

※ 월 평균(5~9월), 입장료 징수일: 2011년 5월 1일



섬 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소규모 매립장·소각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려는 생각은 골똥잡지만 없는 살림 탓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그나마 관광객들이 물리는 지역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관광객들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까지 처리하려면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신안군이 최근 증도 여행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안군은 지난 5월 1일 증도대교 인근에 안내관과 '게이트'를 설치하고 승용차 운전자로부터 1인당 2000원(어른 기준)의 입장료를 받

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입장료 징수를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슬로시티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섬이지만 관광객들이 내다버린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환경 보호와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뒤 지난해 증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2542t으로, 처리 비용만 2억6500만원에 이른다. 다리 개통 이전 하루 2t가량 이던 쓰레기가 5~6.5t수준으로 늘었고, 한 달 평균 211t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2200만원을 썼다.

특히 소중한 깃털 자원과 한반도 모양을 닮은 '천 년의 해송 숲' 등은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증도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되면서 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만큼 '대가'도 컸던 셈이다.

결국, 두고 볼 수 없어 입장료 징수라는 '모험'을 한 것이다.

물론, "섬에 들어가는데 웬 돈이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섬을 떠날 때 1000원을 환불한다고 해도 관광객을 유치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먼 지리적 인 약점 때문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돈까지 내라고 하는데, 누가 오겠냐는 것이

다. 5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성적은 나쁘지 않다. 당장, 지난해 같은 기간 1055t인 쓰레기 발생량이 올해는 910t으로 줄었다. 일주일에 30명이 투입됐던 처리인력에 한 달에 30명으로 줄었고 관광객들이 직접 수거박스에 버리면서 처리비용도 전년도에 견줘 4800만원 절감했다.

신안군은 7월에는 입장료를 1000원(성인 기준)으로 내리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은 방문객에게 받은 연간 3억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증도 환경 보호에만 사용할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여수시 덕충동 여수엑스포 조직위를 방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입장권을 예매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여수시 덕충동 여수엑스포 조직위를 방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입장권을 예매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선 국가 대동맥으로 키울 것”

■李대통령 여수 KTX 개통식 참석

“美 여수엑스포 참가 오바마 내주 발표할 것”

전라선 복선전철사업이 11년만에 완공돼 서울~여수 노선에도 KTX 시대가 열렸다. 5일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열린 전라선 복선전철 KTX 개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권도영 국토해양부 장관,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 각급 인사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약속드렸듯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마칠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며 “전라선 KTX 개통으로 생산유발 효과 2조원,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선을 21세기 신해양시대 열기 위한 ‘환경해경제권’과 ‘남해안 선벨트’를 잇는 국가 대동맥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다음주 미국 국민 방문 기간에 미국의 여수 엑스포 공식 참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방문, 박람회 준비상황

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여수박람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희망을 아름다운 바다, 이 여수에서 실현해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수박람회는 남해안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경제·물류·휴양·관광 허브’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

안을 세계적 휴양·관광지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내가) 역대 대통령 중 호남 방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라며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박람회 입장권 100장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이날 방문 행사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국감현장
법사위-대법원

인화학교 습방망이 처벌 성토장

이재오 의원 '장애인 성폭력' 국정조사 실시 요구
한나라당,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해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습방망이 처벌 관행을 질타하며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법원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을 저질렀는지도 반성하지 못할망정 변명만 하려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장애인 성범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을 소극적으로 해석,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 인정이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장애인 여성이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있게 (가해자에게) 더 강하게 폭행하라고 해야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

다. 이에 대해 박인환 법원행정처장은 “성폭력 범죄는 마지막에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건의 합의와 다르게 취급하는 등 특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광주 인화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국회 복

지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님, 광주 인화학교 문제는 정치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입니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허리 다 부러진 연후에...

전남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응급의료 헬기 운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탑승!
응급의료장비 장착!
5분내 긴급 출동



운항시간
08:30분부터 일몰 30분전까지

운항범위
목포한국병원 반경 70km 이내 인계점 위주

운항체계
환자발생 출동요청 헬기출동 응급처치 병원후송

출동요청자
의사, 보건진료원, 지정민간인, 119, 122, 1339

‘응급환자가 발행하면 가까운 보건기관 등 출동요청자를 통해 요청하십시오’

2011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기간 2011.10.28(금) ~ 11.6(일) (10일간)
장소 전라남도 장흥군 천관산(옥당리)



의학의 모든 것을 체험하세요!

- 서양의학, 한의학, 통합의학, 미래의학 등 전시 체험
- 심포지엄, 명의·명사강연, 보건사업 경연대회, 부대행사 등

